

아티스트들의 문화발신지로 거듭나기 위한 문화 활동

김희태 (주)남이섬 홍보담당 총무

culture art

남이섬은 '문화예술인들의 작은 천국'을 만들자는 동기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메세나 활동을 시작한 이래, 섬 내 각종 문화 인프라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문화계 인사들에게 창작의 터전과 기반을 마련해주는 자연생태 문화공간으로서, 상업적 요지가 아닌 공공의 장소로서, 아티스트들의 문화발신지로서 지속 발전할 것이다.

남이(南怡)섬은 1944년 청평담을 만들 때 북한강 강물이 차서 생긴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내륙의 섬이다. 1965년 수재 민병도 선생(1916~)이 토지를 매입, 모래뿐인 불모지에 다양한 수종의 육림을 시작하고 1966년 경춘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설립, 종합휴양지로 개발하였다. 1960~90년대에는 최인호의 <겨울나그네> 촬영지 및 강변가요제 개최지로도 널리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으로 주식회사 경춘관광개발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2000년 4월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1년 9월 1일 관광경영에 경험 없는 아티스트에게 회사의 전권을 위임하는 대모험을 하게 되었다.

유원지에서 관광지로, 소음을 리듬으로

연봉 단돈 100원에 취임한 동화작가 강우현 대표는 '꿈꾸는 남이섬'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이때부터 남이섬은 '아티스트들의 문화발신지' 역할로서 재창업을 선언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고 순수미술에서 종합예술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중소기업으로서는 획기적인 수준인 연평균 약 5억 원 가량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001년 12월 KBS 드라마 <겨울연가>의 성공으로 인해 대만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급증하여, 2004년 전체관광객 140만 명 중 외국인 27만 명, 2005년 12월 말 현재 총162만 명 중 외국인 28만 명의 관광객이 내방하는 '국제관광지'로 각광받게 되었다.



버려진 타일 등을 재활용하여 꾸며진 <남이섬책나라축제>



남이섬의 문화예술 마인드는 독특하다. 남이섬은 남들이 안하거나 못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날씨가 추워져 남들이 분수를 끌 때 남이섬은 더 크게 틀어 얼음산을 만들거나, 버려진 나무를 주워다 공예품을 만들고, 버려지는 타일도 좋은 재료처럼 생각하고 재활용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남이섬 스타일이다. '유원지에서 관광지로, 소음을 리듬으로, 경치를 운치로...' 만들고자 하는 남이섬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살펴보면 그동안 남이섬이 얼마나 '아티스트들의 문화발신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엿볼 수 있다.

재활용의 생활화 실천, <남이섬책나라축제>

푸른 잔디가 새록 새록 돌아나기 시작했던 2005년 봄, 남이섬에서는 동화의 왕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남이섬책나라축제>가 열렸다. 2005년 4월 22일~6월 30일까지 무려 70일 간의 기간 동안 14만 평의 남이섬의 대지는 책으로 뒤덮여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천국이 되었다.

국제아동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KBBY: Korean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문화관광부, 국제아동도서협의회(IBBY), 대한출판문화협회, 재단법인 노래의섬,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 춘천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YMCA, 대한YWCA연합회, 주한 덴마크 대사

관, 주식회사 남이섬,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2005 재단(덴마크) 등이 참여하여 뜻 깊은 행사에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 세계 39개국(한국포함)에서 보내온 어린이 동화책들을 보려고 행사기간 중 총 424,872명(내국인: 363,108명, 외국인: 61,764명)이 방문하였다. 이 행사에 주식회사 남이섬은 국내 주제 각국 대사관 대사 및 문화담당자 미팅, 섭외 등의 행정 지원과 덴마크 안데르센 재단과 전시 및 행사 도입 관련 국제 행정 지원, 행사기획에 필수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 지원 등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번 행사의 큰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재활용의 생활화를 들 수 있겠다. 부대 전시와 공연 등 모든 행사 자체가 거대한 환경 보전과 재활용의 장이 되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국내 굴지의 국제 전시장에서 버려지는 폐기물 6트럭 분을 가져와 내부 인테리어 등에 사용했다. 무대를 비롯해 벽면, 바닥, 책장까지 모두 재활용 자재를 사용해 만들었다.

전시장을 둘러보기만 해도 재활용 교육이 저절로 될 정도의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도 이목을 끌며,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주한 호주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어린이그림책축제 2005>에서도 재활용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본 행사에서 사용했던 전시책장을 그대로 대여해 쓰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는 친환경, 재활용의 생활화 모습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어

〈남이섬책나라축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재활용의 생활화이다. 부대 전시와 공연 등 모든 행사 자체가 거대한 환경 보전과 재활용의 장이 되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국내 굴지의 국제 전시장에서 버려지는 폐기물 6트럭 분을 가져와 내부 인테리어 등에 사용했다.

Recycle



전 세계 33개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의 문화 축제 (세계청소년공연축제)



린이들에게도 모범적으로 인식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자유로운 문화예술 체험, 〈세계청소년공연축제〉

한바탕 장마비가 퍼붓고 난 남이섬의 여름. 전 세계 33개국(한국 포함)에서 모인 약 580명 청소년들의 눈동자에는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는 무언가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재단법인 노래의섬 주최로 2005년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 6일간 남이섬 일대에서 펼쳐진 〈세계청소년공연축제〉(International Young People's Muse Festival/YoPeFe2005)는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 춘천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 YMCA 전국연맹, 대한YWCA연합회, 주식회사 남이섬

의 후원으로 성대한 막을 내릴 수 있었다.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자기 나라 고유의 노래와 춤을 발표하고 가르쳐 주며 서로 간에 배워가는 과정에서 '세계인은 친구'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워크숍과 공연을 통하여 평화를 위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축제의 목적이었다.

이 축제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 친구들과도 함께 먹고, 자고, 어울리면서 무려 30개 국의 바디랭귀지를 배웠으며, 그들 속에서 자신의 나라 고유의 음악과 춤을 선보임으로써 자신감과 창의적 감각, 국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대회와는 달리 경연대회 방식을 탈피하고, 자유분방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행사 중에

는 2005 한일 우정의 해를 기념하는 한일 청소년 합동 공연이 있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에 주식회사 남이섬에는 실행위원회 구성을 위한 각계 전문가 섭외 등의 행정지원, 행사 장소지원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지원, 행사기획에 필수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 지원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그들의 예술적 재능과 끼를 꽃피울 수 있도록 전폭적인 후원을 해주었다.

문화예술인들의 작은 천국

이 외에 메세나 활동으로서 남이섬 내에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통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안데르센홀(고급문화 확산관련 전시/2003년~현재)에서는 〈안데르센 동화와 원화전〉을 비롯,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림동화 원화전〉, 〈일본 스키우라 합모 일러스트 원화전〉 등 18회의 수준 높은 순수 미술 관련 전시가 있었다.

유니세프 기금 마련을 위해 조성된 유니세프홀(유니세프 모금관련 전시/2004년~현재)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꿈꾸는 나비전〉, 유니세프 친선대사들 〈따뜻한 사진전〉, 최근의 유니세프 카드 전시회 〈기쁨공식, "사랑나누기=기쁨공하기"〉 등 가슴이 따뜻해지는 특별 전시가 이어졌다. 또한 섬내 레종갤러리(문화작가 지원목적 전시/2003~현재)에서는 류재수의 〈노란우산 원화전시회〉, 한병호의 〈도깨비 그림 원화전〉, 〈폴란드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그림책 원화전〉, 〈가을의 향기전〉 등 남이섬에서 활동하는 문화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연일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전시뿐만 아니라 드넓은 잔디와 남이섬 곳곳에 있는 야외 무대들을 통해서도 종합예술축제 및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한일문화교류행사 〈가을을 건너뛰는 남이섬 눈사람 잔치〉, 한양대학교 음악동아리 〈2005 남이섬 사운드 페어〉, 〈ASF 2005 거리예술창작캠프 @ 남이섬〉, 한빛맹학교 〈시각장애우들의 남이섬 음악회〉 등 크고 작은 공연들이 남이섬을 찾은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경영을 잘하면 10년을 먹고 살 수 있겠으나 문화예술의 흔적은 100년 이후에도 후손들의 삶터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로 오늘날의 남이섬을 만들었다. 특히 문화예술 및 시민환경 분야에서 다년간 적극적 활동을 펼쳐왔던 현 강우현 대표는 비록 작은 섬 하나라도 후세에게 멋있게 남겨줄 수 있을 만한 '문화예술인들의 작은 천국'을 만들자는 동기로 2001년 가을부터 본격적 의미로서의 메세나 활동을 시작한 이래, 섬 내 각종 문화 인프라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현재는 '문화예술 자연생태의 청정정원'을 개발목표로, '동화나라, 노래의 섬'을 운영 컨셉트로 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콘서트 및 전시를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연인들에게는 사랑과 추억을, 문화계 인사들에게는 창작의 터전과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자연생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섬 내 주요공간은 상업적 시설을 배제한 채 공공성과 문화예술 지원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획, 안데르센홀, 유니세프홀, YWCA 환경과 생명터, 남이섬문화학교, YMCA 녹색가게 체험공방, 남이섬문화센터 초옥공방, 노래박물관, 문학인촌, 이뜰리에촌, 화석원 분재농원, 재활용센터, 재활용 이슬정원, 레종갤러리, 수재청 책방, 아트숍 등의 문화시설을 전면 배치하고, 호텔·별장 등의 숙박휴게시설 및 식음시설 등을 후면에 배치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현재 여러 문화작가들이 초옥공방과 체험공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남이섬에서는 이들에게 화실과 작업실, 그리고 소정의 창작활동지원금을 매달 후원하고 있다. 또한 '남이섬문화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통해 얻어진 작품들은 섬 내 아트숍 '송아일랜드'에서 일반 관광객들에게 판매되어, 창작과 판매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윈윈 문화발상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문학인촌은 김주영, 최인호, 황석영, 이청준, 박완서 작가의 방으로 구성되어 작가들의 집필공간, 문학

현재는 '문화예술 자연생태의 청정정원'을 개발목표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콘서트 및 전시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연인들에게는 사랑과 추억을, 문화계 인사들에게는 창작의 터전과 기반을 마련해주는 자연생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Nature Ecology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남이섬

지방생들의 무료 숙박공간 및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서, 일반인들이 문학세계로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와 YMCA, YWCA의 문화활동에도 매년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섬 내부뿐만 아니라 섬 외부로의 적극적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

고 있다.

향후에도 남이섬은 문화계 인사들에게 창작의 터전과 기반을 마련해주는 자연생태 문화공간으로서, 상업적 요지가 아닌 공공의 장소로서, 아티스트들의 문화발산지로서 지속 발전할 것이다. 🌿